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The Coming Victory)

I. 스가랴서의 메시지와 스가랴서 1 장의 중요성

- A.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계획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다 (1:12-2:12; 8:2-22).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 주권적인 메시야로서 나타나실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11; 6:12-13; 9:10, 14; 12:10; 14:10, 17).
- B. 예루살렘 성전은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의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다 (14:16). 따라서 스가랴서는 이 시대의 기도 운동에 적합한 메시지가 되는데, 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천년왕국 예루살렘 예배 센터와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불렀고 (사 56:7),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확증하셨다 (마 21:13).
- C.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으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였다. 스가랴서는 절망에 놓인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렇기에 이 책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개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놀랍다 (1:1-6). 이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 중 하나이자, 스가랴서의 소망의 메시지의 기초가 된다. 사랑과 소망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는 반드시 회개로의 부르심을 포함해야 한다.

³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속 1:3)

- 1.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것만이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한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 2.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은 자신의 분명한 임재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약속하시므로써,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로 나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신다 (롬 2:4).
- D. 하나님의 감정: 스가랴 1 장은 하나님의 네 가지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질투(열심), 분노, 자비, 그리고 인내.

- 1. 질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자신의 백성과 목적을 세우고,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한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1:14-17; 8:2-8).

¹⁴ 외쳐 이르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속 1:14)

²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속 8:2)

- 2.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큰 질투를 가지고 계시며 (1:14; 8:2), 부드러운 긍휼로 예루살렘 백성의 죄를 다루신다 (1:12, 16; 7:9; 10:6).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미래의 영광스런 계획을 통해 그 땅을 위로하신다 (1:13, 17). 주님은 잠시동안 (1:15)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하셨다 (1:2, 12).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지만 (1:15), 그분의 때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아시기에 그들을 인내하고 계신다 (1:11, 15).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 E. **선포:** 스가랴서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선두주자 메시지다 (1:14, 17). 스가랴서 전체 메시지는 스가랴서에 소개된 많은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할때 그 세대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 F.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주님의 부정적인 관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스가랴는 그가 받은 모든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것을 대한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와 회개의 필요성을 결코 경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스가랴는 당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갈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 너무나도 분노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 (마 23:35; 눅 11:51).

³⁵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 [스가랴]의 피... (마 21:35)**

- G.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감정들, 예를 들어 자비와 분노를 함께 드러내실 때에 그분의 성품에는 그 어떤 모순이 없다. 역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징계와 연단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그분 안에는 일말의 모순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가지 성품을 나타내실 때 다른 성품을 결코 보류하지 않으신다.

II. 스가랴서의 도입 (1:1)

- A. 스가랴서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관계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1:1). 이것은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때를 의미한다 (눅 21:24). 이 때는 느브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¹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속 1:1)

- B. **여덟째 달:** 다리오 1 세, 또는 페르시아 (바사) 왕 다리오는 BC 522 년부터 486 년까지 통치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8 월 29 일 학개의 사역이 시작된 지 3 개월 후인 **BC 520 년 11 월**에 선포되었다. 그는 **BC 520 년 8 월부터 12 월까지** 이스라엘이 행동을 촉구하는 네 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1. 학개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임한 것은 **8 월 29 일**이었다(역자주: 성경에 표기된 유월은 유대력 표현법이다). 학개는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 (학 1:2-11)을 시작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4 일이 지난 **9 월 22 일**에 성전재건을 시작하였다 (학 1:12-15).
2. 학개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한 것은 **10 월 17 일**이었다. 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며** (또는 그만두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학 2:1-4).
3. 스가랴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임한 것은 **11 월**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는데 (1:1-6), 이들은 타협으로 인해 쉽게 넘어졌기 때문이다 (1:3). 그들은 신속히 회개했다 (1:6).
4. 학개에게 세 번째 메시지가 임한 것은 **12 월 18 일**이었다 (학 2:10-23). 그는 제사장들의 지속적인 타협과 성전 재건이 늦어지는 것을 책망했다. 그는 순종이 경제적인 축복을 가져올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학 2:10-17).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5. 스가랴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한 것은 BC 519 년 2 월 15 일이었다 (1:7-6:8). 이 때는 그에게 첫째 메시지가 임한지 3 개월이 지난 후였으며, 성전 재건을 시작한지 5 개월이 지난 후였다 (학 1:15).

C. **잇도의 손자** (역자주 : NIV, NKJV 등 영어 성경에는 잇도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에스라서의 족보는 스가랴의 아버지인 베레가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유명한 할아버지인 잇도만을 언급한다 (스 5:1; 6:14).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의 아들’을 뜻하는 단어인 ‘벤’은 또한 “~의 손자”로 해석할 수 있다. 잇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이었다 (느 12:4, 16).

III. 스가랴의 첫번째 메시지 (1:1-3): 회개로의 부르심

A. 스가랴의 첫번째 메시지는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1:1-3).

¹ 여호와와 말씀이 ...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²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³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속 1:1-3)

1.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1:3),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다 (1:4). 예수님, 세례요한,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회개를 촉구했다. 회개의 메시지는 예수님 사역의 근본적인 내용이었다 (마 4:17). 이 메시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다음을 참조하라. 마 9:13; 11:20-21; 12:41; 막. 1:4, 15; 2:17; 6:12; 눅. 3:3-8; 5:32; 10:13; 11:32; 15:7, 10; 16:30; 17:3-4; 24:47; 행 2:32; 3:19; 5:31; 8:22; 11:18; 13:24; 17:30; 19:4; 20:21; 26:20; 롬 2:4; 고후 7:9-10; 12:21; 딤후 2:25; 히 6:1, 6; 벧후 3:9; 계 2:5, 16, 21-22; 3:3, 19; 9:20-21.

2.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며 영적으로 돌아오시며, 재림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다 (1:16; 2:5, 10; 8:2; 9:9-10; 14:3-5, 10).

3.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주님은 결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실 만큼 진노하신 적이 없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조금 노하셨고, 단지 잠시 동안만 노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2, 15).

4.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는 3 절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을 “만군의 주” 또는 “만군의 여호와”로 언급한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시고, 이스라엘의 거역함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B. 스가랴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거부했고, 그 결과로 심판이 임했음을 호소한다 (1:4-6). 그들의 조상들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을 거부했다 (사 1; 렘 3; 겔 18; 욕 2; 등).

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⁵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⁶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KJV 흠정역: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속 1:4-6)

1.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임함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음으로), 그분은 그들의 악한 길로 인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성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없기에(사 55:11), 불순종을 붙잡으신다.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과 축복을 베푸신다 (신 28:15, 45).
¹⁵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⁴⁵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신 28:15, 45)
3. **그들이 돌이켜:**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였다 (1:6). 그로 인해 이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8:9-15). 어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라는 때 지난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타협에 뿌리를 둔 “대중적인” 유행(트렌드)을 붙잡을 것이다.
4. **여호와께서 ... 뜻하신 것을:** 스가랴는 주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었음을 말했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주께 돌아왔었다 (1:6).
5.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이 찢었던 분에 애통하게 될 바로 그 부분이다 (12:10). 자신의 지속적인 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⁴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 ⁴¹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⁴² 내 언약을 기억하며 ...
⁴³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⁴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 (레 26:40-44)
6.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스가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함으로써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살필 것을 촉구하였다. 그것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경고는 그들과 함께 죽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로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⁵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속 1:5)
7. 사람의 수명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 한결같고, 신뢰할 수 있다. 스가랴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 심판이 임할것을 약속하셨던 주님(신 28:15, 45)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했다.

IV. 첫번째 환상의 도입 (1:7)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 A. 스가랴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가 한 날 밤에 본 여덟 개의 환상들의 내용이다 (1:7-6:8). 이 여덟개의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미래, 특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초점을 주고 있다. 이 환상들은 스가랴 생전에 성취되지는 않았다. 이 환상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이 환상들은 기도의 집을 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과 격려가 된다.
- B.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대해 질투하시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시고, 이방인의 지배 아래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C. 열한째 달 (스밧월) 스물 넷째 날은 현대력으로 BC 519년 2월 15일이 된다 (1:7). 이것은 11월에 주어진 회개에 대한 스가랴의 첫째 메시지가 임한 후 3개월이 지난 후다. 또한 5개월 전의 같은 날 사람들은 학개의 예언에 감동을 받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 (학 1:14-15).
- ⁷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밧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 (속 1:7)

V. 첫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사람 (1:7-17)

- A. **요약:** 스가랴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숲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하얀 말 무리가 따르는 한 사람을 보았다 (1:8).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천사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였다 (1:12). 이 사람은 그 말들이 이 땅을 두루 다니는 천사들을 태우는 말들임을 설명했다 (1:10). 이 돌아보는(정찰하는) 천사들은 주님께 이때에 열방에는 전쟁과 소요가 없이 “평안”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1:11, 15).

⁸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⁹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¹⁰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¹¹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속 1:8-11)

1.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서 단지 두 천사들만 있는 것으로 본다 - 여호와의 사자 (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1:8, 10)와 “내게 말하는 천사” (1:9, 13-14).
 2. 이 환상에는 네 명의 사람 또는 그룹(group)이 나온다 (1:8-11)
 - a. 붉은 말을 탄 사람 (1:8, 10), 여호와의 사자 (1:11-12).
 - b. 선지자 스가랴
 - c.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불리우는 설명해주는 천사 (1:9, 13-14)
 - d. “한 사람”을 따르는 말들을 탄, 땅을 두루 다니며 돌아보는 천사들 무리 (1:8, 10-11)
- B.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붉은 말에 올라탄 사람은 그 구절 전체에 걸쳐 정체불명으로 남아 있다 (1:8). 대부분의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8절과 10절에 나온 화석류 나무에 있는 사람이 11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하다고 본다. 또한 그는 아마도 셋째 환상에서 예루살렘을 척량했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2:1-2).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 C. **여호와의 사자(천사):** 이 여호와의 사자는 스가랴서 3:1-2 절에 다시 등장하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주께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말을 건넨다 (1:12). 몇몇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존재이지만, 나머지에서는 그가 주님인 것처럼 묘사된다 (창 16:7-13; 31:11-13; 출 3:2-6, 14; 23:20-22; 민 22:22-35; 사 6:11-18).
- D. **내게 말하는 천사:** 밤에 나타난 환상들에 대해 스가랴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명해주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했다 (1:9, 13, 14, 19; 2:3; 4:1, 4; 5:5, 10; 6:4). 그는 “내 주여”라고 불리우는 자와 동일한 존재이다 (1:9). 이 설명하는 천사는 말들(horses)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1:9), 한 사람이 그 말들의 역할이 땅에 두루 다니며 정찰하는 천사임을 말했다 (1:10).
- E.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스가랴는 말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1:9). 설명해주는 천사는 말들에 대해 이르기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땅을 두루 다니는 천사로 설명했다 (1:10-11). 스가랴는 동일한 천사에게 일곱 번씩이나 물어보았다: “이들이 무엇입니까?” (1:9, 19, 21; 4:4, 11, 12; 6:4).
- F. **두루 다니라고:** 색깔있는 말들을 타고 (1:8) 땅에 두루 다녔던 천사들은 (1:10) 이 땅을 돌아보고 주님께 보고를 했다 (1:11). 영계와 자연계의 활동 사이에는 깊은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속 1:8-11; 2:1-4; 3:1-5; 6:1-8; 단 10:12-13, 20-21; 앱 6:12; 계 6:1-8; 12:7-9).
- G.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돌아보는 천사들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패배시킨 (BC 539 년) 후, BC 520 년에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평안과 조용함은 (1:15) 페르시아의 통치 하의 나라들이 공개적인 반역이나 큰 군사적 마찰이 없이 견디고 있음을 말한다.
1. 많은 사람들은 최악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보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억압하는 여러 나라들의 “평안”한 상태를 하나님이 좋게 보고 있다라고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전 8:11).
 2. 주님은 당시 여러 나라들이 평안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이후에는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1:15, 21; 6:1-8).
 3. 이스라엘 외의 온 땅은 “평온”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하의 지난 70 년의 시간으로 인해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의 주된 불평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4.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좀 더 주시고자 열방을 인내하신다. 이것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벧후 3:9)
 - b. 열방의 최악이 가득 차오르도록 (창 15:18)
 - c. 앗수르(사 10:5)나 바벨론(렘 25 장)과 같은 나라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해
 - d. 자비를 베푸시며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계 2:20-23)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 H.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화석류는 2.4m 까지 성장하는 상록수다. 당당하고 키가 큰 백향목보다는 오히려 초라한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화석류나무의 가지들은 초막절의 초막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고,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적으로 나타낸다 (느 8:15). 그것들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랑이 몸에 달고 다니던 것이다.
- I.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을 상징하며, 이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공휴일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을 위해 중보하신다 (1:12).
- J. **골짜기 속:** 탈군과 탈무드는 이것을 “골짜기”로 번역한다.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비천한 위치와 세상의 눈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스가랴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암울한 위치를 나타낸다. 화석류 나무는 골짜기에서 자라난다.
- K. **이들:** 9-11 절에 나온 “이들,” “그들,” 그리고 “우리”는 세가지 색깔의 말들을 타고 있는 땅을 두루 다니는 천사들을 말한다 (1:8).

VI. 속 1:8 절의 말들

- A. 이 말들의 색깔은 붉은색, 자주빛 (얼룩무늬의), 그리고 흰색이다 (1:8). 이 색깔들은 아마도 그들의 임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땅을 두루 다니는 말을 탄 천사들은 군사적인 배경을 암시한다 (1:10).
⁸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속 1:8)
- B. 하늘에도 말들이 존재한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천상의 병거들을 이끄는 말들을 보았다 (왕하 2:11; 6:17). 예수님께서서는 말을 탄 성도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계 19:11, 14).
- C. **넷:** 넷이란 숫자는 이 땅의 숫자이며, 혹은 전 세계를 말하는 숫자이다. 이 숫자는 이러한 심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의 네 모퉁이, 온 땅을 말한다 (1:11; 6:5).
- D. 스가랴서 1:8-11 과 6:1-8 에 나온 네 말들은 계시록 6:1-8 의 네 말들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스가랴서에서는 그 말들의 색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계시록 6 장에 나온 각 색깔이 뜻하는 바는 명확히 알 수 있다.
 - 1. 속 1:8 절에서, 말들은 **붉은색, 자주색 (얼룩무늬),** 그리고 **흰색**을 띠고 있다. 이 말들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며 돌아보는 역할을 했다 (1:10-11).
 - 2. 속 6:2-3 절에서, 이 말들은 **붉은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어롱진 (회색점이 있는)** 말들이다. 이 네 말들은 두 개의 낫 산 사이에 네 개의 병거를 끌며 나왔고, 땅에서 심판을 수행했다.
 - 3. 계시록 6 장에 나오는 말들은 **흰색, 붉은색, 검은색,** 그리고 **청황색 (회색빛을 띄는 녹색)** 이다.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 E.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의 피흘림을 말한다. 사도 요한은 전쟁으로 땅을 치기 위해 칼을 받은 붉은 말 탄 자를 보았다 (계 6:4). 붉은 말 탄 자는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에 임박한 심판을 상징한다 (1:21). 이사야는 보복하시는 날에 홍의(붉은 옷)를 입고 이스라엘을 향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기록했다 (사 63:1-6).
- F. **자줏빛 말:** “자주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루킴은 “얼룩 무늬의” 또는 “혼합된 색”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 단어의 뜻은 명확히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이는 아마도 혼합된 색 또는 심판과 자비가 혼합된 임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G. **백마:**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며,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계 6:2).
- H. **검은 말:** 검은 말은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한 애통함을 말한다 (계 6:5)
- I.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육신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계 6:8). 헬라이어 클로로스는 “창백한” (젯빛, 또는 문둥병자 같이 노란빛을 띠는) 으로 번역되며, 죽어서 창백한 것과 시체의 부패를 표현한다.

VII.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중보하는 여호와의 사자 (1:12-13)

- A.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중보했고 그들을 향한 위로를 풀어놓는다 (1:12-13). 예수님의 중보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신다.
- ¹²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¹³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속 1:12-13)
- B. **언제까지:** 평안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보고는, 계속적으로 황폐함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을 낙심케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여호와의 사자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 년의 고난(렘 25:11-12)과 관련된 황폐함이 끝나기를 간구했다. 그 시기는 끝이 났지만 왜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으며, 이방인의 무거운 멍에 아래 있는가?
- C. **70 년:** 바벨론 포로기의 70 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관점이 있다. 첫째는 이 바벨론 포로기가 포로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BC 600 년에 시작되어, 첫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BC 536 년 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둘째는 이를 성전이 파괴된 BC 586 년에 시작되어 성전이 재건된 BC 516 년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주께서는 두 가지 시각 모두에서 70 년의 기간이 놀랍도록 정밀하게 성취되도록 역사를 이끄셨다.
- D. **위로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 천사의 중보에 응답하신다 (1:14). 이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1:14-17). ‘위로하다’ (1:13)의 단어는 이사야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다 (사 40:1-2).

¹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²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 40:1-2)

VIII. 위로의 메시지 (1:13-17)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 A. 스가랴는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위임받았다 (1:13-17). 이것은 스가랴에게 하룻밤 사이에 임한 여덟개의 환상들에 대해 받았던 네 가지 예언적인 말씀(오라클) 중 첫째이다 (1:14-17; 2:6-13; 4:6-10; 6:9-15). 여기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일한 의미이다. 이 도시에 대해 두 개의 이름이 쓰인 것은 과거의 예루살렘과 미래의 시온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음이 나타낸다.
- ¹³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¹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¹⁵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¹⁶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 [성전]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¹⁷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속 1:13-17)
- B. 외쳐 이르기를: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메시지와 (1:14) 적들의 확실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1:15, 21)를 선포하도록 위임받았다. 이것을 당신의 삶의 메시지의 일부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 자신의 백성,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대해 큰 열심과 질투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 ¹⁴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속 1:14)
- C. 하나님의 질투: 14-17 절의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계시는 스가랴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메시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질투와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자라나 가야만한다.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신랑, 권능의 왕,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시다.
- 예루살렘을 향한 질투: 주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할 것이며, 이방의 정치적인 억압과 유대인의 영적인 타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실 것이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언약에 충성되고 약속된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에 열심이 있으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에 열심이 있으시다 (1:16; 2:5, 10).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자 (시 48:1-5; 마 5:5),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서 정치적, 영적, 교육적, 그리고 재정적인 수도가 될 것이다 (사 2:2-4; 렘 3:17).
- ¹⁶ 내가 공홀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 되리니 ... (속 1:16)
- 성전 짓는 것에 열심이 있으심: 예수님은 자신의 집(성전, 6:12)을 세우심으로, 이곳을 자신의 보좌로 삼으며 (겔 43:6-7) 천년 왕국 동안 온 땅에 대한 활동의 중심지로 삼으실 것이다.
- ¹² 보라 씩이라 이름하는 사람[예수님]이...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 (속 6:12)
- ⁶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 ⁷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겔 43:6-7)
- 주님은 스가랴 시대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도우셨다 (4:6-10). 스룹바벨은 5년 후인 BC 516년 3월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다 (스 6:15). 예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부르셨고, 이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셨다 (마 21:13; 요 2:17).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D. **척량줄 (먹줄):** 척량줄은 건물 건축에 사용하는 측량 기구였다. 한 도시에 척량줄을 펴서 뺀 것은 도시의 경계선을 확장하는 의미였다.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작업은 스가랴 시대에 시작되었고, 다시금 1948 년에도 시작되었지만, 이 예언은 천년왕국의 시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¹⁶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속 1:16)

E. **심히 진노하나니:** 주님은 열방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는 이유를 밝히신다 (1:15). 주님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유다를 훈계하는 하늘의 임무의 도를 넘어섰기에 진노하셨다.

¹⁵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속 1:15)

1.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한 여러 나라들에 진노하신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쌓여가고 있는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평안하다:** 이 반유대주의 국가들은 그 당시 평안하고 고요했는데 (1:11, 15),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던 것을 아예 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전 8:11). 그러나 역사는 이에 대해 반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쳤던 고대의 위대한 제국들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
3. **조금만 노하였거늘:** 하나님이 **조금 노하셨다**는 것은, 진노의 강도를 묘사하기 보다는 “잠시동안” 진노하듯 짧은 시간동안 진노하심을 말한다 (1:2, 15). 주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주님과과의 관계를 끝낼만큼 오래도록 진노하신 적이 없다.
4.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주님의 길은 복합적이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나라들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최악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은 유다를 징계함에 있어 하나님께 받은 임무의 도를 넘어섰다 (사 47:5-6).
⁶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 [바벨론]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사 47:6)
5. 이 나라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넘어 설 수” 있다. 주님은 열방이 자유의지를 발휘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치 않는 것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며, 그 다음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신다.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뜻을 얼마나 멀리 벗어나도록 허용할 지의 경계를 주권적으로 정하신다. 열방이 죄를 지을 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자신의 더 높은 목적들을 성취해나가신다.

F. 주님은 유다의 성읍들(1:12)이 넘치도록 다시 번영할 것을 약속하셨다 (1:17). 이것은 스가랴 시대에 부분적으로 일어났으며, 1948 년 이후에 더 많이 성취되어다. 그러나, 이스라엘 도성이 누리게 될 번영의 충만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1:16).

¹⁷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속 1:17)**

1. **나의 성읍들:** 주님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자신의 것임을 밝히신다 (1:17). 주님은 자신의 유업인 이러한 성읍들을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고, 보호하신다 (2:4-5; 시 2:8-9).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2.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주님은 모세에게 예루살렘을 택하셨음을 말씀하셨으며, 솔로몬에게 그분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대하 6:6, 34-38). 스가랴서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전 세계적인 나라의 중심지로 (사 2:2-4) 다시 택하신다 (1:17; 2:12; 3:2).

⁶**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대하 6:6)**

IX. 두번째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1:18-21)

- A.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흠엎던 이방의 세계 권력을 의미하는 네 개의 뿔을 보았다 (1:18-19). 이 두 번째 환상은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면을 보여준다 (1:13, 17).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히 노하신” (1:15) 이방의 세계 권력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보여준다.

¹⁸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¹⁹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 [제국들]이니라. (속 1:18-19)
- B. **뿔들:** 뿔들은 권능을 상징한다 (신 33:17; 삼상 2:10; 왕상 22:11; 시 18:2; 22:21; 75:10; 89:17, 24; 92:10; 112:9; 132:17; 렘 48:25; 겔 29:21; 단 7:7-8, 24; 8:3, 5-6, 20-21; 계 5:6; 13:1; 17:3, 7, 12). 동물들은 뿔로 스스로를 방어하며 공격한다.
- C.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는 설명하는 천사에게 뿔들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1:8). 그 뿔들은 이스라엘을 흠엎던 나라들이며 (1:19), 자신들의 뿔로 이스라엘을 찔렀다.
- D. **네 뿔들:** 이들은 아마도 다니엘이 본 네 개의 이방 제국들인 바벨론, 메데-바사(페르시아), 헬라(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2:31-45; 7:2-13).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을 억압했던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핍박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네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 (단 2)과 네 짐승의 제국(나라)들의 환상에서 (단 7) 이와 똑같은 네 개의 이방 세계 권력을 목격했다. 대부분의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네 나라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간주한다.
 1. 어떤 이들은 이 뿔들을 앗수르,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로 보는데, 이는 스가랴가 이 둘째 환상에서 설명한 것처럼(1:9) 이 나라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흠뜨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과거 시제로 표현됨). 그러나 어떤 예언적인 구절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말하기도 한다.
 2. 또 어떤 이들은 숫자 4가 나침반의 네 방위들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네 뿔은 모든 방향의 이스라엘의 적들을 의미한다: 북쪽으로 시리아, 앗수르, 그리고 바벨론; 남쪽으로 에돔과 이집트; 동쪽으로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서쪽으로 블레셋.
 3. 또 다른 이들은 숫자 4가 세상의 네 모퉁이의 열방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따라서, 네 개의 뿔들은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이방인들 전체를 의미한다.
- E.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 어떤 나라라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제 2 장: 장차 다가올 승리 (속 1:1-21)

- F. 이스라엘의 평안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모든 이방인 세력에서 해방될 때에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상징이 사용되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음에 어떤 나라가 뿔의 제국으로 일어날 지를 알 수 없었다.
- G.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란 세 이름(1:19)은 역사의 어느 순간을 막론하고 나라 전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 H.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네 뿔의 나라를 멸하는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았다 (1:20-21)
²⁰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²¹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흠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시니라 (속 1:20-21)
- I. **유다를 흠뜨린 뿔들:** 이 천사는 방금 말했던 것을 (1:19) 반복함으로 (1:21), 유다가 흠뜨림을 당함으로 어느 누구도 머리를 들 수 없게 될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J. **대장장이 네 명:** 이 대장장이들은 망치를 가진 건축자들이었으며, 이 망치는 부숴지기 쉬운 솟양의 뿔을 쉽사리 산산조각낼 수 있었다. 이 대장장이들은 악한 뿔의 제국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대장장은 “나무나 금속을 다루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라쉬에서 왔다.
1. 이 네 명의 대장장이들은 메데-바사(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나타낸다. 각 제국들은 앞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뿔의 제국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데 사용되었다 (단 2:34-35, 44-45).
 2. 첫째 대장장은 바벨론의 뿔을 깨뜨린 페르시아이다 (BC 538). 둘째 대장장은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 페르시아의 뿔을 부순 그리스이다 (BC 331). 셋째는 그리스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다 (BC 146). (이는 동시에 넷째 뿔이기도 한데, 고대의 로마 제국 혹은 미래에 부활할 적그리스도의 제국 모두 말한다). 넷째 대장장은 적그리스도 왕국을 패망시킬 메시아 왕국이다.
- K. **두렵게 하고 떨어뜨리려하다:** 이 대장장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흠뜨리고자 했던 뿔의 제국들을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진노하여 열국을 두렵게 하시는 다윗의 예언(시 2:5)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뿔로 찌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다.
- L.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창 12:3). 온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심판할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이 보고 계신다. 이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10:3-9; 12:3-9; 14:2-5, 12-16). 적그리스도 제국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이끌 것이지만, 이는 명확히 실패할 것이다 (12-14).
- M.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에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흠뜨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리라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만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렘 30:11).
- ¹¹ 너를 흠뜨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 (렘 30:11)

- N. 스가랴 1 장의 두 환상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부르며,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온전한 구원, 회복, 그리고 보호를 약속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가득하신 마음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저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격려를 받을 수 있다.